

보 도 설 명 자 료

('22. 10. 25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일부 원전의 중저준위 방폐물 포화율이 100%를 넘어섰고,
중저준위 방폐물 처리를 위한 장소조차도 갖추지 못했다는
주장은 사실과 다름

(10.25일자 경향「시한폭탄 품은 아파트, 원전」 보도에 대한 설명)

1. 기사내용

- ☐ 한빛·한울 원전의 중저준위 방폐물 저장시설 포화율이 100%를 초과
- ☐ 해체 폐기물 처리시설은 아직 확보를 준비중인 상황으로 중저준위 방폐물을 처리할 장소조차도 갖추지 못함

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

- ☐ '22.9월 기준 한빛 원전과 한울 원전의 중저준위 방폐물 저장시설 포화율은 각 81.6%와 70.4%로서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
 - 원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우선 일반 산업폐기물을 걸러내고, 이후 압축·절단 등 부피를 줄여 드럼 용기에 넣어 저장한 다음, 최종적으로 중저준위 방폐장으로 보내서 처분함
 - 기사에서 언급한 100% 이상의 포화율은 일반 산업폐기물과, 부피 감축 등을 거치지 않은 중저준위 방폐물까지 합산하여 포화율을 산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음

□ 아울러, 중저준위 방폐물 처리(treatment)시설이 없다는 기사내용도 사실과 다름

○ 우리나라는 '15년부터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을 운영하며, 중저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처분(disposal)을 위한 장소·기술을 갖추고 있음

※ 문의 : 원전환경과 박태현 과장(044-203-5340)/변재택 사무관(5341)